

신년특집

#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2005년도 벌써 1달이 지나갔다. 지난 연말 각 도서관별로 한해를 정산하느라 몹시 분주해서였을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느낌이다.

2005년을 예측하는 글 중에는 '주5일근무제' '학교도서관' '법개정' 등의 단어가 많이 눈에 들어온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예산 지방 이양> <도서관정책 담당부서 이관> 등의 굵직한 정책 변화도 과연 우리의 현실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궁금하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예측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대로 도서관계가 2005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편집자 주

[실문사형]

- ① 귀하께서는 2005년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김세빈 회장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전망

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영역이 물리적 공간내의 제한적인 자료제공 봉사에서 다양한 디지털자료(e-book, 원문정보서비스 등)를 이용한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며, 학생들의 독서교육은 가일층 중요시 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학교도서관의 기본 시설과 장서를 확충하고 도서관 활용 수업을 위한 장학지원체제를 갖추는 등 학교도서관을 교육활동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② 우리 협의회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사립도서관장 및 직원, 각 급 학교장, 사서담당, 대학도서관 사서담당을 대상으로 5월 정기총회 및 11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독서감상문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국민독서생활화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광주·전남도서관 발전에 헌신한 우수도서관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예정이다.

[연락처 : 회장 김세빈, 광주송정도서관 관장,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 Tel. 062-941-9412, Fax. 062-944-9411, news62@hanmail.net]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이광래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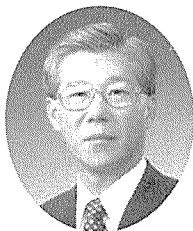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연구자의 이용권에 대한 보호가 병행되는 기틀을 마련해야

① 우선 도서관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도서관 보상금제에 대한 용어의 재정리 및 법의 개정이 실현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병행하여 연구자의 저작물 이용권에 대한 보호도 병행되어야 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한편 2006년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성공적 준비를 위하여 관중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될 한해가 될 것 같다.

② 현재의 대학도서관의 업무처리는 1982년 7월 10일에 발행한 대학도서관업무편람(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편)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대다수의 도서관 업무가 정보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 대학도서관 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 협의회에서는 2005년에 대학도서관 기준과 관련된 업무편람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도서관의 대학 내 위상 강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한해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연락처 : 간사 김종필, 강원대학교중앙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Tel. 033-250-8019, Fax. 033-251-2700, kimjp@kangwon.ac.kr]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나종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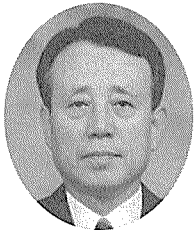
주제전문사서제도(의학사서) 시행을 목표로 준비 작업 진행

① 2005년에는 예년보다 자료의 디지털화가 가속될 전망이므로 도서관 업무의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연히 프린트물의 자료구입이 줄어들면서 전자자료의 양이 많

아지므로 전자자료를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이나 Tool이 요구될 것이다. 사서들은 자료의 정리 업무 비중보다 이용교육 비중이 커지며 더욱 사서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②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2005년도에는 주제전문사서제도(의학사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를 해오고 있었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으므로 규정의 문서화와 교육 프로그램 연구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의학사서제 시행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의학사서회의에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연락처 : 간사 김은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93-7 영화빌딩 302 B호, Tel. 02-322-5831, Fax. 02-322-5832, kmla@kmla.or.kr]



##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 한성택 회장

학교도서관진흥법 입법화로 공교육 정상화와 사서직 진로 확대 기대

① 지난해 출발 시점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변화 없이 한해를 또 다시 넘기에 되어 매우 이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기대했던 여러 일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현안 문제로써 꼽을 수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시책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공교육 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사서직 진로의 대 확대라는 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계기가 무산되지 않도록 모두의 힘을 합쳐 협력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 협의회에서는 첫째, 학과특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교육과정의 대폭적인 개편을 통하여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는 교육개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어린이 독서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실습위주의 내용으로 개편할 것이며 이 교육 과정을 확대 실시하여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에게만 실시하던 것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셋째, 2년제 대학의 교육실정에 적합한 특성화 실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방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넷째, 「학교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에 대비함과 아울러 독서지도와 학교도서관 이용지도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2년제 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개편을 위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섯째, 졸업생들의 재교육 사업과 이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 회장 한성택,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서울시 중구 예장동 8-3, Tel. 02-3708-9104, Fax. 02-

3708-9106, libraryis@sewc.ac.kr]



### 한국문헌정보학회

한윤옥 회장

도서관 정책 기능 이관에 따라 문헌정보학계도 새로운 자세 필요

① 민관 협력 아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대학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등과 같은 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주도 아래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부터는 도서관 정책집행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게 된다.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인들의 의식개방을 따르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정책이 우려된다. 도서관인들의 새로운 각오와 자세가 더욱 요구되며,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도서관의 변화를 주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론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문헌정보학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서 존재하지 않도록 현장과 연계한 학문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과 연구자들의 단합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론과 실전을 양측으로 하는 연중 2회의 학술발표회 개최와 4회 학술지를 발행할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학계의 단합을 위하여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주제를 찾아 타 학회와 공동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소규모의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헌정보학계나 현장의 발전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회원들과 협심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것이다.

[연락처 : 회장 한윤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Tel. 031-249-9177, Fax. 031-249-3504, yohan@kyonggi.ac.kr]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김승환 회장

도서관 활용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역할을 할 각종 도서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 어느 기간 동안에 습득한 지식은 수없이 창출되고 있는 새로운 정보 때문에 낙후됨을 인식하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느끼는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필요로 할 것이며, 특히 현재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교육도 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의 전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② 우리 학회가 이제 5번째 시상하는 학술상에 대하여 금년에도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학문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에게 연구상을 수상하고, 지난 1년간 발행한 우리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상을 시상하여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문헌정보학 발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 학회가 하계와 동계학술 발표대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 학술 발표 중 6월에 실시하던 하계학술발표대회를 8월 19일을 전후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학회의 회원 구성은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교수와 문헌정보를 관리하는 현장의 사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중심의 학술발표와 현장 중심의 사례연구 발표를 개최하여 양측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학회가 되도록 한다.

[연락처 : 회장 김승환,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 6-2 Tel. 011-311-5520, Fax. 031-280-3504, rrrcamp@chol.com]

## 한국비블리아학회

### 이란주 회장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전자정보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활성화에 따라 관중에 관계없이 전자정보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관의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스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웹문서, 전자저널 및 전자책, 원문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및 관련 예산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② 한국비블리아학회는 문헌정보학 이론 및 실무현장의 관심부문을 중심으로 1년에 두 번씩 기획주제 형식의 학술제를 개최하여 왔다. 2005년 첫 사업으로 춘계학술발표회를 5월 2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주제는 “도서관과 정보 Literacy”로 도서관이용지도, 주제 정보전문가 서비스, 이용자 조사 및 교육, 독서지도 및 치료, 특수 정보이용 교육 등으로 학계 교수, 연구자 및 실무자의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11월 18일 개최될 추계학술발표회의 기획주제는 추후 결정될 것이다. 또한 학회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소식지 제공 등 학회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내용의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연락처 : 총무 안인자, 동원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신촌리 산 1-1, Tel. 011-742-4217, Fax. 031-763-8541, ijahn@tongwon.ac.kr]

##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

### 회장 이정걸



토요 휴무제 전면 실시로 도서관 이용자 증가,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될 것

① 토요 휴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서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도서관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주말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등 평생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과 겸용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이며, 복지정책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도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가중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 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인채책의 장서 증가율보다 전자책 증가율이 점차 늘어날 것이며, 이용율도 증가할 것이다.

② 총회 및 세미나 개최(연 1회), 문화유적지 탐방, 연구회보 발간(연 2회), 한국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정보 교환(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락처 : 회장 이정걸, 경상북도립청도도서관 관장,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3리 508번지 Tel. 054-373-6617, Fax. 054-372-0922, chongdolib@hanmail.net]

## 부산도서관연구회

### 송현서 회장



주5일근무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고조로 전문화, 고급화된 다양한 서비스 기대

①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은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있고, 도서관 주변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의 변신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5일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이용자들은 예전의 단순한 읽을거리를 기대하던 차원에서 보다 전문화, 고급화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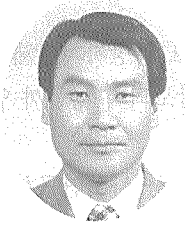
이제는 수동적인 자료제공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화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용자의 질적, 양적 욕구 증대에 대비한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을 꾀하는 일이 급박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종 사회지표와 도서관 이용 행태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예측하고 도서관 스스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여타의 지식정보 관리 조직, 문화 기관, 단체에 도서관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부산도서관연구회는 부산의 공공도서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서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으로 전체 회원은 109명이다. 매년 6월 중순경 도서관 정책과 업무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난 해의 세미나는 '도서관 보상금제도'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제로 개

최되었고, 2005년도 역시 6월 초순경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활동은 부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는 기획부, 문헌정보부, 열람봉사부의 3개 부로 나뉘어 관련 연구주제를 정하여 조사, 연구활동 후 매년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2005년도에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변화추이에 맞추어 각 부 조직을 재정비하여 독서교육팀(독서운동, 독서치료, 독서교실), 전산팀(디지털자료실 업무, KOLAS 관련), 평생교육팀(문화강좌,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팀(홍보, 대외협력, 혁신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사서들의 독서자료에 대한 지식 축적 방안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책읽기 소모임과 독서토론모임이 활성화되도록 권장하고, 사서의 자기 연찬과 업무 개발에 도움을 주는 자료의 수집과 제공, 정보교류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연락처 : 회장 송헌서, 연산도서관 관장,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255-1, Tel. 051-753-2501, Fax. 051-751-9969, salvia999@hanmail.net]



### 경기도사서협의회 정문택 회장

경기도내 2005년 23개의 도서관 개관 예정, 도서관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해야

① 2005년도를 전망하는 각종 경제지표와 도서관 동향을 볼 때 도서관계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2005년 23개의 도서관이 개관예정으로서, 바람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간의 정책조율, 협력 시스템 구축,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도서관 운영방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가장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도서관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화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② • 도서관 건립 추진 : 2006년까지 도민 10만명당 1개관 운영(어린이, 특수도서관 포함)을 목표로 2005년 23개 도서관의 완벽한 개관 준비

- 도민 1인당 장서 수 0.8권 이상을 목표로 장서확충 추진
- 정보과학기능 보강을 위한 첨단과학실습실 및 테마정보실 설치
- 도서관 자동화기기 지원 : 2005년 20개관에 도서대출자동반납기기 지원사업 추진
- 도서관간 네트워크 및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혁신 과제발굴
- 직원의 업무자질과 역량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우수도서관 견학 및 업무연찬)
-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통한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로 도민의 알 권리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 직원의 화합을 위한 제2회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연락처 : 회장 정문택, 안양평촌도서관 관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9-2, Tel. 031-389-3870, Fax. 031-389-3869, mt0119@hanmail.net]

## 경상북도사서연구회

### 회장 이정걸



자료구입비 지원 지자체 일임으로 독서인구 감소 우려

①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도서관 이용자가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이다. 직원들의 업무부담 또한 증가할 것이며, 주말근무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저하됨에 따른 마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도서관계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용직 채용, 연수생 및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직원 고용이 확대될 것이며, 도서관의 단순 업무나 도서정리업무 등을 아웃소싱 하는 도서관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도 시차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2005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했기 때문에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자료구입비가 오히려 격감되어 독서인구가 감소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② 사서직 정원 증원 대책 강구와 주5일 휴무제에 따른 주말 근무 여건 개선책 마련 등 사서연구회원들의 권익신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http://www.lib.or.kr>) 활성화, 연구회 비전 제시 및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3개 분과), 사서 화합의 날 지정 운영(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최 등), 공공도서관 발전 방안을 위한 회원들의 수시 의견 수렴, 도서관 장비 현대화 사업(예, 모바일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락처 : 회장 이정걸, 경상북도립청도도서관 관장,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3리 508, Tel. 054-373-6617, Fax. 054-372-0922, chongdolib@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

### 김두연 과장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3년차 사업 중점 추진

①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일상화된 위기, 사회적 갈등의 급증 등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도서관계에서도 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5년 7월부터는 행정기관의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이용이 확대되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말에 운영하는 각종 강좌 개설 등이 증대될 전망이다.

② 2003년부터 5개년간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3년차 사업을 중점 추진한



다. 2005년에는 전국 1,200개 학교에 600억원을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의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적 구조를 구현한다.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8.5권으로 확대하며, 인터넷 기반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를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교문헌 등)의 목록 및 원문의 디지털화 사업, 통계자료·설문자료 등의 원자료(raw data)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술정보원자료시스템 구축 사업, 학술정보의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디지털형태로 관리하는 지식정보생성체계 기반구축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락처 : 과장 김두연,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Tel. 02-2100-6500, Fax. 02-2100-6564, kimdoo@moe.go.kr]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도정일 대표

도서관구입비 지원 지자체 이양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해야, 기적의도서관 개관은 계속

① 공공도서관 확충과 활성화는 올해에도 가장 중요한 도서관계의 과업이다. 정부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서관의 도서관구입비를 각 지자체로 이관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적지 않은 격차가 생겨날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도 도서관계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기존의 계획대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의 건립이 진행된다면, 올해 경기도 등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바람직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도서관계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계획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가칭)은 이런 점에서도 도서관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 작업 중이다. 도서관의 근본적인 이념과 철학을 담은 도서관법을 제정하는 것은 새 천년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독서장애자, 복역자, 이주노동자, 기타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회 성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도 도서관계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올해에도 계속된다. 충청남도 금산군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2개 지역에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2005년말에는 모두 9개의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을 것이다. 기적의 도서관이 하나의 사회적 육아 지원 기구로서 정보 불평등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작년에 결성된 '기적의도서관전국협의회'가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 '복스타트'는 올해 실시 지역을 대략 2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도

북스타트를 실시함으로써, 도서관이 독서와 육아지원, 지역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올해 '책읽는사회'는 책읽기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그리고 깊이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책읽기 문화와 관련된 각종 법 제정 및 개정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각종 정책 포럼을 통해 책 읽는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문과 방송, 기타 매체 집단들과 공동으로 책 읽는 사회를 위한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정책 제안과 책읽기 문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올해 책읽기 문화의 일대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연락처 : 사무처장 안찬수, 서울시 중로구 동송동 25-1 일석기념관 2층, Tel. 02-3675-8783~4, Fax. 02-3675-8788, read3@chol.com]

이 설문은 한도협 부산지구협의회장, 한도협 대구·경북지구협의회장, 한도협 광주·전남 지구협의회장, 공공도서관협의회장, 국·공립대학교서관협의회장, 한국사립대학교서관협의회장, 전문대학교서관협의회장,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장,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장, 과학기술 정보관리협의회장,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서울시도서관연구회, 부산도서관연구회, 대구공공도서관사사회,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광주사우회, 광주빛고을사서회,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경기도사서연구회, 경기도사서협회, 충청북도사서협회, 충청남도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전남공공도서관연구회, 경상북도사서연구회, 경남공공도서관연구회, 제주도서관연구회, 대전지역공공도서관연구회,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 책읽는사회 만들기국민운동 대표, 한국작은도서관협의회, 도서관운동연구회, 경기도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협의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사단법인 어린이도서관연구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학교서관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새마을문고중앙회,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등 총 48곳에 보냈으며 마감일 전에 도착된 원고만 이번 호에 게재하였음. ■ 편집자주